

# 산들

| 퍼낸이,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중보기도	5
매일기도	6
성경 자세히 읽기	8
발에 감추인 보화	11
가족소식	12
가족모임스토리	14
예가소식	16

## “어떤 노인의 꿈”

사랑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격려를 받으며, 잠시 동안의 휴식을 즐겼다. 말로만 듣던 '라 만차의 사나이' 뮤지컬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올드팝스러운 멋진 노래들과 함께, 성경에서만 전해지는 '꿈꾸는 노인'의 이야기에 빠져보았다. 나이가 들수록 꿈도 꾸지 않고, 잠도 줄어든다는데, 그야말로 꿈에 빠진 노인이 한 명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돈 키호테였다.

꿈꾸는 노인은 거리의 창녀도 고결한 숙녀 '돌시네아'라 불렀고, 여관주인은 존귀한 영주님이며, 이 발사의 세숫대야는 황금투구라고 불렀다. 노인은 이긴 싸움에서도 패자들의 상처를 걱정한 매너 좋은 기사 지망생이었다. 물론,

기사제도가 없어진 지 300년이나 지난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꿈꾸는 노인은 그저 미치광이 늙은이였다. 그런데도, 뮤지컬은 이 꿈꾸는 노인의 손을 들어준다. 산초는 '왜 미친 늙은이를 따라다니냐?'는 질문에, '그냥 좋으니까'라며 노래 부른다. 노인은 비록 이룰 수 없는 꿈이라 해도, 사랑을 향해 힘껏 팔을 뻗겠노라며 노래한다.

돈키호테 이야기를 독해하는 방식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랑이라는 꿈에 빠져 결코 헤어 나오지 않으려 했던(!) 노인의 이야기'로, 내 마음대로 유쾌하게 즐겼다. 노인이 꿈에서 나온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죽음을 의미했다. 노인은 꿈 속에서만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현실에서는 죽은 사

람이었다. 노인이 꿈을 꾸는 동안 그가 만난 사람들은, 현실에서 죄수이건 창녀이건 비천한 사람이건 간에, 그에게는 모두 고결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었다. 분명 그는 미친 노인이다.

나는 미친 사람을 싫어한다. 나는 정신분열증에 시달린 사람들을 적지 않게 겪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꿈 속에서 산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분열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는 저 돈키호테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꿈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있다. 그들은 현실보다 더 무서운 꿈을 꾸다. 그들의 꿈은 지옥을 선취한다.

그러나, 저 노인의 꿈은 미친 사람은 절대로 꾸지 않는 꿈이다. 그의 꿈은 사랑으로 가득 차있고, 그의 꿈 속에서 모든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나는 '미쳤다'는 말을 재정의하고 싶다. 사람은 미칠수록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고, 정서적으로는 우울과 분노로 채워진다.

누가 저 노인을 미쳤다고 하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는 말년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성품을 맞본 자이고,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가장 활기 있는 삶을 누린 자이다.

뮤지컬 하나 덕분에, 내가 꾸는 꿈에 엔진이 하나 더 달린 좋은 느낌이다. 나도 사랑만 하며 사는 행복한 꿈에서 헤어 나오지 않으리라. 사랑을 향해 더 힘껏 팔을 뻗치리라.





■ 오늘 낭독한 창세기 8장의 말씀은 노아 홍수 이야기의 맨 끝 단락입니다. 본문은 당시 노아가 육백한 살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

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다.””(창6:3)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는 노아의 나이가 이미 육백 살을 넘었습니다. 무엇인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지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흔히 원역사라 불리는 시기에는 노아와 같이 수백 년을 산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따르면, 아담은 구백삼십 년을 살았습니다. 가장 장수한 이로는 에녹의 아들인 므두셀라가 구백육십구 년을 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창5:27)

정말 인간같이 않게 오래 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다면, 저들은 사람이 아닌 뭔가 다른 존재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좀 살펴보니, 그나마 성경은 고대 근동 문헌들 중에서는 상당히 절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원전 2천 년 경에 기록된 토판 중에 ‘수메르 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이 문헌은 수메르 왕조의 주요한 사건들을 요약하고 있고, 수메르 영웅시대의 전설들이 기록된 문헌입니다. 이 문헌에 따르면, 왕정이 ‘에리두’라는 도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두 명의 왕이 64,80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왕권이 ‘바드-티비라’라는 도시로 옮겨갔는데, 그 곳에서는 세 명의 왕이 무려 108,000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적 스케일이 대단합니다. 성경엔 천 년 이상 산 사람도 없는 데, 수메르나 바빌론 문헌에서는 왕이나 영웅들이 기본 2만 년 이상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어째서 왕조실록 같은 기록에서조차 그렇게 과장된 숫자를 사용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 즉 하늘이 내린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나이를 저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군의 경우에는 기원전 24세기경에 나타나서, 1천 년을 다스렸다고 전해지는데, 단군의 탄생이나 통치기간의 묘사에서 볼 수 있듯이 단군 역시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계도, 중국의 경우에는 몇 백년 씩 살았다는 왕은 없습니다. 그 전설적인 황제들인 삼황오제들도 단군 전후의 시기에 나타났는데, 모두 백 년 전후로 밖에 못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은 사실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오해입니다. 중국의 경우, 전설 속의 황제들은 사람의 모양과는 달랐으니까 말입니다. 노아와 비슷하게 대홍수 때에 박속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기원전 29세기 경에 나타난 복희는 삼황오제 중 삼황의 한 사람인데, 얼굴은 사람이지만, 몸은 용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사에서 고구려의 시조로 알려진, 기원전 1세기의 동명성왕 역시 6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만,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나이로든, 외모로든, 탄생으로든, 왕들의 존재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창세기 원역사 속의 인물들이 유독 나이가 많았던 것도, 그들의 존재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저는 이 정도 밖에 추론하지 못합니다.

잠언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잠10:27)

예언자 이사야도 잠언과 비슷한 입장을 보여주는데,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백 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백 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사65:20)

물론, 구약에는 모세를 의식한 탓인지 인간의 수명이 120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120세라는 제약과 무관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창세기	8 : 13 - 22
골로새서	3 : 12 - 17
누가복음서	17 : 11 - 19



니다.

단, 구약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사람에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편 133편에 '영생'으로 번역된 것도 실제로는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생명' (히, 하임)과 똑같은 단어인데, 시편에서는 그것을 '영생'으로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영원', 즉 '올림'이란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엘 올림',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을 두고 '영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는 확실히 존재론적인 차이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오면, 예수님과 바울은 그 차이를 없애버립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죽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구약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는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죽음이나 생명에 대한 입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백성'과 '아들'은 층위, 즉 클래스가 아주 다른 표현입니다. 백성은 신적인 존재가 아닐 수 있지만, 아들은 확실히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처럼 그냥 '생명'이라고 해도 될 것을 두고, 굳이 히브리어의 '올림'에 해당되는 '아이오니오스'라는 표현까지 덧대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으로 네 복음서가 공히, 그것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영원한 생명'이란 표현의 '영원한'이란 표현은, '끊임없이 오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적인' 혹은 '하나님의'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신약성경에 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 즉,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도 있고, 그의 몸의 행실에도 배인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은 실상은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생명은 신적인 것이어서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의 자존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충분히 짐작

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 유독 눈에 들어와서 나름 큰 인상도 받고, 태도를 가다듬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는 장면은 많지만, 읽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은 누가복음 4장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로 시작하는 이사야서의 한 대목을 읽고 나서, '이 성경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내용은 둘째치고, 저는 예수님이 성경을 읽는 방식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행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읽는 도중에 이루어졌다니 좀 특이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읽는 사람의 선언인가 하는 의문이 든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갖게 된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전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선언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읽는 책이라는 느낌입니다. 고대로부터 한국은 조선시대까지도 분명했는데, 경전이라는 것은 항상 왕제교육의 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종교들의 경전뿐만 아니라, 유학의 경전들이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등은 모두 왕이나 왕이 될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통치의 지혜를 얻는 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관한 한, 이와 같은 관점을 기본으로 하고 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물론 소설책처럼 읽어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성경이 아무한테나 덩석덩석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고,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네 이웃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물론 소설책처럼 읽어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성경이 아무한테나 덩석덩석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고,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무슨 도덕적 명령이나, 순종해야 천국 가는 명령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삶은 데 그렇게 살겠습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나' 때문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비롯해서, 그 권력 아래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즐거울 수 없습니다. 자기 존재감과 너무나 맞지 않아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기독교를 보고 비웃은 내용 가운데 제가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기독교인들은 모두 노예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권력에 굴림 없이 자기 길을 갔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 길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상의 권력에 맞들어서 그 노예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니체가 한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의 노예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 섬기라 했는데, 왜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존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도 아닌 세상에 가서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 노예짓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존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가교회의 일원으로 살면서 하나님

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짓밟고 세상의 노예로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어찌 세상노예의 노예가 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허접한 자존감,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존재들의 공동체인지도 몰라서, 아무데서나 고개를 숙이고 노예짓을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그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도 아닌 땅 아래 속한 사람이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가르침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단호하게 선포하신 것처럼, 철저히 악마에게 속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가르침에는 귀도 기울이지 마시고, 눈도 주지 마십시오.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가교회는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이라면 무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차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존감 하나만큼은 예수님과 바울 못지 않게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키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여전히 괴로움이 남아있는 까닭은, 그만큼 우리에게 자존감이 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예수님의 계명은 행해야 하는 계명이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계명이 행해야만 하는 계명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가교회로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존감은 분명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예가교회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 말고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길? 저는 이런 소극적 대답보다는 적극적 대답을 가지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특히 강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하나님의 아들로 못합니다. 자존감이 주인에서 노예로 금방 전락하고 맙니다. 교회로 사는 기쁨은 사라지고 괴로움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어찌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이니, 저는 이것만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의 자존감을 하나님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가교회의 교인들은 성경읽고,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와 괴로움으로부터 잠시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신비한 교통을 하는 신비체험의 시간이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행복한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시간이라서 가장 즐겁고 귀한 시간이라는 대답을 갖는 교회로 삼습니다.



#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뿌리 조민경: 초록님과 사귀의 시간을 갖고 선물을 하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진주님과 맛집 투어를 하면서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씨앗님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성찬준비 메뉴선정과 예배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뿌리님에게 격려 선물을 하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가족들이 부탁한 것들을 잘 챙기고 생명님을 돕겠습니다.

화음 김진승: 불꽃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시원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유유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불꽃 김강진: 화음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가온 양세련: 큰열매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원 박주현: 신나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한 조현: 유랑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희은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마르다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유랑님에게 감사사를 전하겠습니다.

희은 박용제: 즐거운님에게 매일 아침 문자에 3번 이상 답문을 하고 문안인사를 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성찬준비를 즐겁게 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에스더를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은석님과 준비해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어울님에게 계절에 맞는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일대일 만남 짝에게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광야님에게 간식을 선물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좋은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빌립님에게 곰탕을 선물하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바다님께 선물을 하겠습니다.

광야 김규동: 가족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찬미님과 즐거운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샤론님과 카톡으로 사귀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온유님에게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교육자섬김 주간의 의미를 담아 맑은님과 만나겠습니다.

맑은 최영란: 반찬을 준비하여 하나님 아들로 사는 자존감을 독립군과 나누겠습니다.

샤론 김진수: 나무와 카톡으로 사귀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맑은님과 만나서 사귀겠습니다.

온유 유형미: 늘빛님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해 석재호: 아모님에게 브로치를 만들어 선물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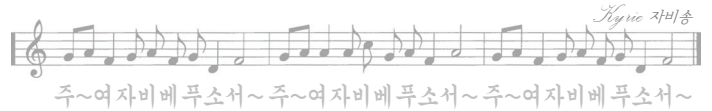
아모 박주은: 해님을 좋아하기 위해 선물을 하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새롬님에게 성경말씀과 감사문자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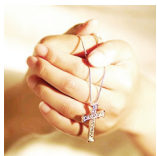
달빛 김주영: 보라님에게 감사문자를 하겠습니다.



# 창조절 일곱째 주



주~여자비베무소서~ 주~여자비베무소서~ 주~여자비베무소서~



## 아침 기도

### 시편찬양

시편 16편

소리내어 천천히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까.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빛은 제삿술을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 첫 기도

주님, 그리스도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  
해, 오늘을 주셨으니, 이기심과 탐욕에 빠  
져 지냈던 어제는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오늘에 집중하여, 사랑하라 하신  
삶을 누리게 하소서. 내 것을 퍼주는 사랑  
의 기쁨으로 가득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아멘

###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 독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5-26 / 27-28 / 1-2

3-4 / 5-6 / 1-2

소리내어

###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  
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  
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  
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  
소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  
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  
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  
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  
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  
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  
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고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 밤 기도

### 시편찬양

시편 16편

소리내어 천천히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께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까.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빛은 제삿술을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았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 첫 기도

주님,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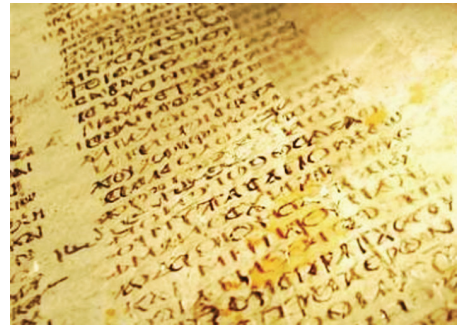
##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제66 회



##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28)

헌금 외에도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가르침이 '전도'이다. 흔히, 전도를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많다고들 한다. 전도를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갈 때에, 자기 창고에 황금이 가득 쌓여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역시 어리석은 발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상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추측한 것인데, 정작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온통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수준이다.

“[18]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21] 또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계21:18-21)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하늘의 도성은 기본적으로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도로도 기본적으로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깔

려 있다고 하니, 가는 길마다 황금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천에 깔린 것이 금인데, 그런 금을 창고에 쌓아 두어서 무엇에 쓰려는 것인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아도, 전도를 많이 하면 상급이 크다는 이야기도 없거니와, 그 상급이라는 것이 천국개인창고에 황금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역시 아무 쓸데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상에서 황금이 가치 있는 까닭은, 그것이 화폐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천국에서는 황금이라는 것은 화폐로 통용되는 물건이 아니라, 도로의 포장재료이고, 건축물의 주재료인 셈이다. 즉, 천국에서는 황금이라는 것이 시멘트나 콘크리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 세상의 나라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세상이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전도의 상급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그 상급의 내용으로 황금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황금이라는 것은 권력을 전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상급이다. 권력의 정도에 따라 황금의 소유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길을 추구한다. 지난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의 길은 자기 창고에 황금같은 것이 계속 쌓이는 길이 아니라, 자기 창고가 오히려 비어가는 길이다. 이 점에서 사랑의 길은 권

력의 길과 그 방향도 내용도 정반대인 길이다.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길이 정반대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황금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한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발상인가? 게다가 천국에 무슨 개인 창고 같은 것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쓴 것의 몇 배, 몇 십 배, 혹은 몇 백 배로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발상은 무엇인가? 전도라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 상급이 가장 클 것이라는 가르침은 무엇이고, 그래서 전도에 관해서는 천국개인창고에 들어갈 상급의 양이 엄청날 것이라는 발상은 또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들과 똑 같게 보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의 주권들과 동일하게 보는 발상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 권력들의 총합이나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수준의 권력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삶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받는 상이 황금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우선, 전도를 많이 한다는 말부터 개념을 재정리해야 한다. 성경에는 '전도'라는 말은 없다. '전도'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말도 정확



한 말은 아니다. 전도라는 말과 관련된 표현들을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튿날 우리는 그 곳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행21:8)

본문에서는 ‘전도자 빌립’이 등장한다. 여기서 전도자는 ‘유랑겔리스테스’를 번역한 것이다. 즉, ‘기쁜소식의 선포자’를 뜻하는 말이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고 전한다. 어떻게 선포했냐 하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막1:15)이다.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의 삶과 함께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으로 사셨다. 전도자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했을 것이고, 그 자신이 그 기쁜 소식의 증거로 살았을 것이다.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되어 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복음서 시대의 교회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것이다. 이 소식을 자기의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의 삶과 선포를 보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자기도 그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던 것이다.

사실, 바울 서신에는 ‘전도’라는 표현은 일체 등장하지 않는다. ‘전도’는 제2 바울서신이나 기타 서신에서 가끔 등장하는 표현이다. ‘전도’라는 번역어는 제2 바울서신으로 알려진 에베소서에도 역시 1회 등장하고 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

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엡4:11)

역시 본문에서도 사도행전과 동일한 ‘전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골로새서에도 ‘전도’라는 표현은 1회 등장한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골4:3)

그러나, 본문의 ‘전도’는 ‘로고스’를 번역한 것이다.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는 말씀의 문’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씀’에 해당되는 ‘로고스’를 굳이 ‘전도’로 번역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목회서신인 디모데후서에는 ‘전도자’, ‘전도’라는 표현이 각각 등장한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딤후4:5)

‘전도자’는 사도행전과 골로새서와 동일한 헬라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자’(유랑겔리스테스)를 번역한 것이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딤후4:17)

본문에서 ‘전도’는 ‘케뤼그마’를 번역한 것이다. 즉, ‘선포’를 뜻하는 말이 ‘전도’로 번역된 것이다. 여기까지가 전도로 번역된 모든 본문을 찾아본 것이다. 신약성경 사번역에는 ‘전도’라는 표현이 들어간 번역어가 총 5회 등장하며, 그 중에 3개는 ‘전도자’라는 표현인데, 이는 ‘기쁜 소식의 선포자’를 번역한 것이며, 나머지 2개는 ‘말씀’(로고스)과 ‘선포’(케뤼그마)에 해당되는 말을

‘전도’로 번역한 사례였다.

이번에는 전도와 유사한 표현으로 다룰 수 있는 본문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사도행전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행8:5)

본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선포한다’는 ‘케뤼그마’의 동사형인 ‘케뤼쇼’를 사용하였다. 아마도, 선포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일 것이다. 바울서신인 로마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롬10:17)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은 ‘레마토스 크리스투’, 즉 ‘그리스도의 선포’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번역한 것이다. ‘레마토스 크리스투’가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과 가르침으로 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번역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게다가 ‘들음’이라고 번역된 것도 ‘아코에’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듣는 행동에 주목하는 표현이긴 하나, 교훈이나 선포의 의미로도 쓰인다. 우선, 번역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나타나고 있다.

“[14]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15]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16]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롬10:14-16)

우선,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의 표현이 바로 본문 안에 서도 ‘들음’이나 ‘전하는 소식’ 등으로 번역된 ‘아코에’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듣는 동작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알’, ‘소문’, ‘교훈’ 등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우리가 놓쳐서 안될 점 한 가지는, 성경에서는 ‘듣는다’는 표현을 ‘순종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즉, 말씀과 관련해서는, 물리적으로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표현은 쓰지 않는다.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나 ‘깨닫다’ 혹은 ‘알게 되다’는 쪽에 훨씬 가까운 표현이다. 여기서, ‘깨닫다’나 ‘알게 되다’는 모두 몸으로 순종함으로써 얻는 앎을 가리키는 것이다. 특히, 16절에서는, ‘히프아코우오’, 즉 ‘아코에’의 동사형인 ‘아코우오’에서 비롯된 동사가 ‘순종한다’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코에’의 동사형인 ‘아코우오’는 이미 14절에서부터 나타난다. ‘순종한다’는 뜻이 ‘히프아코우오’로 이미 쓰였으니, 이를 ‘알게 되다’(come to know)로 번역하게 되면, 본문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4절부터 보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롬10:14)

여기서 ‘들은 적’, ‘들을 수’라고 2회에 걸쳐 번역된 ‘아코우오’를 ‘(몸으로 순종하여) 알게 되다’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들이 (순종함으로써)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함이 없이 어떻게 (순종을 통한) 앎(깨달음)

이 있겠습니까?”(롬10:14)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순종을 통한 깨달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절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전하는데,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된 말씀에 대한 순종과 깨달음과 관련된 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삶이 없는 사람이, 그냥 소리내어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의 증거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이, ‘주여, 주여’를 외친다고 해서 구원이 임한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바울의 논지를 완전히 무시한 난센스이다. 이제, 10장 15장을 보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나! ” 한 것과 같습니다.”(롬10:15)

본문에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로 번역된 표현은 ‘사도’(‘아포스톨로스’의 동사형인 ‘아포스텔로’를 번역한 것이다. 즉, ‘사절로 파송되다’는 말이다. 따라서, 본문을 좀 더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사절로 파송을 받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선포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라 하였습니다.”(롬10:15)

헬라어 사본에는 ‘발걸음’과 같은 표현은 없으니 무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사야의 표

현은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는 선포하는 사람들 자신이 기쁜 소식이기도 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좋다는 말이다. 바울의 논지를 고려한다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좋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절로 파송된 사람들이며, 그들만이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 16절을 보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롬10:16)

본문에서 ‘순종’은 ‘아코우오’에서 파생된 동사를 번역한 것이다. 또한, 이사야서 인용에서 ‘전하는 소식’은 ‘아코우오’의 명사형인 ‘아코에’를 번역한 것이다. 이를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기쁜 소식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순종하여) 알게 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롬10:16)

이사야는 자기가 순종함으로 깨달은 것은 기쁜 소식으로 선포했는데,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누린 사람들이 거의 없음을 탄식했던 것이 인용되고 있다. (다음 시간에 계속...)





# 무조건 좋아하기

화음가족 화음 김진승

요즘 내가 워크북을 작성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1분 스피치를 적는 칸 일 것이다.

내가 가족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한다 하면서 과연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표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것에 더 집중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나름 사랑의 실천을 하다 보면 정말 1주일도 금방 가버린다. 어떨 때에는 쓸데없는 걱정을 할 틈이 없게 만드는 이 고민이 참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몇 발자국을 걸 으면 내 발소리를 듣고 집에서 키우는 개 지니와 고양이 타니가 동시에 나한테 달려온다. 신기한 것은 매일 보는데도 느낌은 몇 달을 못 본 것처럼 서로 무진장 반가워한다. 인사를 하고 두 마리를 교대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쳐보면서 예쁘다고 해주고 나서야 요란한 아침 인사는 끝이 난다.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밥 주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고 매일 부시시한 모습으로라도 나타나 주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지니와 타니를 보면 참 좋다. 가끔 똥, 오줌을 아무데나 싸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엉망으로 해놓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저 예쁘고 바라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난다.

언제인가 목사님께서 강아지 예뻐하듯 자식도 조건 없이 그냥 예뻐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무엇인가를 잘해서, 말 잘 들어서 예쁜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예뻐하고 좋아하라는 말씀이었다. 아마 내가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았더라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다.

나를 좋아해서 좋아하고, 내 말을 잘 들어서 좋아하고,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서 좋아하고, 개와 고양이한테는 바라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한테는 바란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기대한 만큼 안 해주면 괴로워한다. 만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니와 타니로 보인다면 하루 종일 반가워하며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침에 눈뜨면 자식을 보면서 반가워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며 또 반가워하고, 교회 가면 교인들을 보면서 더 반가워하고, 상상만 해도 즐겁다.

이번 주 사랑의 실천 목표는 불꽃언니를 좋아하는 표현하기이다. 글을 쓰면서 새벽에 언니를 생각하니 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음, 예쁘다’ 이번 주에는 아침마다 언니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겠다.

‘저는 기도 할 때마다 불꽃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 예수에 대한 불꽃님의 믿음과 화음가족에 대한 불꽃님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불꽃님의 믿음의 사귀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불꽃님이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불꽃님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불꽃언니! 저 기도 제가 빌레몬서 1장 베껴 쓴 거예요, 어쩐지 좀 멋있었죠? 언니

하고 화음가족으로 함께 살아서 정말 좋아요’

이런, 벌써 새벽 5시가 다 되어간다. 고양이가 타니가 슬며시 문을 열고 들어온다. 아, 고양이는 정말이지 참 예쁘다.







#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 소식가족

요한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요한님이 요즘 위가 안 좋다고 해서 요한님의 건강이 좋아지기를 기도하며, 그를 더 좋아하게 되어 기뻐다, 지난 주 목표 실천으로 가족들을 생각하며 호흡기도를 했다, 등대님을 더 좋아하고, 그 열정을 따라 하여 가족들을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다, 며칠 동안 계속 카라님을 위한 선물로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고, 풋케어를 준비했다, 감사표현을 하는 시간이 주어져서 참 즐겁다는 느낌이 들어 좋았고, 카라님이 더 예쁘고 멋져 보여서 기쁘고 감사하다, 즐거운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선물로 감사표현을 계획하였다, 음료수를 구입해서 선물로 드렸다, 카라님에게 요리용 저울을 선물했다, 카라님이 요긴하게 쓰실 생각을 하면서 좋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 시간에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장면을 통해 자신의 삶과 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서 살 수 있다는 중요한 뜻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는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키고 주기도와 호흡기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에 집중하며 살겠다, 내 것으로 가족들을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 홈스테이에 늦게 가지만 충실하게 참여하고 아이스크림을 선물하겠다, 홈스테이 가족들과 잘 사귀겠다, 홈스테이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하겠다, 홈스테이 기간에 간식을 준비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화음가족

신나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유유님이 사는 곳에 홍수가 났다는 뉴스를 보고 유유님을 격려하고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밀반찬과 햇반, 커피 등을 준비하여 보냈다, 내 아이를 위해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반찬을 만들게 되는 그 마음을 떠올리며 반찬을 만들었다는 화음님의 말이 떠올라,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새벽에 멸치볶음을 만들었다, 선물 받은 멸치볶음이 너무 맛있다고 말하던 유유님의 미소를 떠올리니 흐뭇했다, 유유님에게 우리 가족모임의 근황을 자

세히 전하는 장문의 이메일을 써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예수님의 삶이 수많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한 것이 감동적이었고 마리아가 랍비님이라고 할 때 느낌이 전해져서 감동적이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싶었다, 금요일에 있는 일정을 연기하고 홈스테이에 참석하겠다, 홈스테이에 간식을 준비하겠다, 아모님에게 감사선물을 하고 홈스테이에 필요한 장을 보겠다, 자기 피와 살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홈스테이에 음료와 간식을 준비하겠다, 퍼주는 삶을 살겠다, 좋은님과 회은님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포도가족

달빛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달빛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 만든 목걸이를 선물했다, 제대로 마감하여 선물하니 좋았다, 새롭님을 좋아하기 위해 새롭님에게 안부전화를 하기로 했다, 홈스테이를 통해 사귀어 더 깊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도 후 달빛님에게 성경말씀과 감사문을 하고, 달빛님을 더 좋아하

는 마음이 생겼다, 달빛님에게 전화를 하고 식사준비와 도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달빛님이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내가 받은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베풀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읽으며 정신차리고 살아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노예들의 편에 서서 노예들에게 섬을 주고, 속박을 풀어주는 ‘그리스도’의 본뜻에 따라 살고, 그 뜻을 완성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홈스테이 게임과 선물을 기쁘게 준비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사랑가족

생명님 집에서 4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대가족만남을 마치고 아모님과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며 좋은 생각을 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마음이 넓어지고 기쁨이 배가 되었다, 교역자 섬김주간 행사로 아모님의 자녀들과 보낸 시간들이 의미 있고 매우 좋았다, ‘식구들과 맛있게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준비하는 음식은 이 세상 어떤 음식보다 귀하게 느껴지고 만드는 내내 기

쁘고 좋았다, 샐러드를 준비하며 기분이 좋았다, 가족모임을 참여하지 못하고 출장을 가게 되어 마음이 불편했지만 가족들의 응원으로 한결 가벼운 마음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 바쁜 가운데에도 힘써서 와준 생명님과 커피를 마시며 인도자모임을 할 수 있어 좋았다,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권력의 의미로 변질되었다, 바울이 전하려는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예수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과,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읽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 맑은가족

사론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사립주간 행사로 맑은님과 수산시장으로 같이 가면서 믿음의 삶을 나누어 좋았다, 가족들과 수산시장에서 사귀니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존재로 다가왔다, 섬기는 활동으로 가족 모두와 만남을 가져 좋았다, 사론님을 좋아해서 사론님이 좋아하는 호박을 선물했다, 지키지 못할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흔한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의 삶을 누구나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구하자,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고, 먹여 살리는 삶이다, 홈스테이의 게임 재료, 된장찌개, 밀반찬을 준비하고 유쾌하게 참여하겠다, 화음에게 카톡으로 인사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성실가족

바다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찬미님을 생각하며 함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고마웠다, 항상 격려해주고 신경 써 주는 것을 보며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했다, 마스크 시트를 선물했다, 좋은님과 즐거운 사귀기를 갖고 좋은님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참 좋았다, 좋아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찬미님과 일대일 만남을 준비했다, 말씀과 믿음의 삶을 준비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할 거리가 많다는 것에 기분 좋았다, 인도자 모임에서 예비인도자 칭찬을 준비하고 발표했던 느낌과 좋아하는 마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칭찬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따라가려고 한다는 말에 감

동했다, 함께 하면 할수록 찬미님이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와는 표현만 다를 뿐 내 살과 피를 내주어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라는 맥락은 똑같다, 내 살과 피를 주어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한다,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살겠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 드림가족

소망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감사 문자를 보내고, 가족들이 보내준 감사 문자를 보면서 우리 가족이 서로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느꼈고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며 가족들을 더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주는 대가족만남과 작은교회박람회로 교회 식구들과 많이 만나고 사귀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맑은님과 성찬 빵을 3개나 함께 만들면서 성찬 빵 만드는 것에 대해 조금은 자신이 생겨서 좋았고 맑은님이 감사표현으로 저녁을 대접해주셔서 감사했다, 대가족주간에 화음님과 일대일 만남으로 믿음의 사귀기를 하고 감사문자를 주고 받으며 함께 해서 좋은 것을 나누는 시간이 가졌다, 어울님께

게 작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크리스탈 서랍을 찾아 선물로 보냈다, 시원님과 시원님의 직장 근처에서 만나 일대일 만남을 하고 서로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간장게장으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즐거운 사귀의 시간을 가졌다, 대가족 짝인 불꽃님과 영화관에서 만나 맛있는 메밀을 먹고 같이 견고, 일대일 만남을 하고 ‘마션’이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예수가 하면 나도 한다’는 말씀이 떠올랐다, ‘예수님’ 하면 가장 강렬하게 생각나는 것은 죽음이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삶이 좋은 것보다는 두려운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나는 지금 살아 있으니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을 따라 잘 살아야겠다, 요한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살과 피를 주어 먹이는 삶을 살겠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 가족모임, 스토리로 날다

이 코너는 3년째 가족모임에서 스토리와 캐릭터로 살면서 자신의 성격강점을 강화시킴으로써 더욱 재미있어진 가족모임으로 사는 삶을 나누고자 만들었습니다. 스토리와 캐릭터로 산 이야기와 함께, 산돌 900호에서 처음 선보인 포토샵으로 교우들의 사진을 꾸몄으니 읽는 재미와 보는 재미, 또 사는 재미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드림가족

### 이벤트방: 놀이로 사귀자

이번 주기 방장은 언제나 어울이며, 스토리는 깊어가는 가을에 가족들과 이벤트를 만들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섬김과 격려 주간에는 방장인 언제나 어울이 직접 호박죽을 끓여서 가족을 대접했다. 목포에서 직접 끓여 보내온 찰기 있고 맛 좋은 호박죽을 맛있게 먹으며 어울님에게 감사했다. 또 해태감독이 추천한 아현동 맛집에 가서 오리누룽지백숙으로 몸을 보양하고 가을산책을 하였다. 다음주에는 텃밭을 정리하고 국화를 심을 계획이다.

## 소식가족

### 흙의 대륙 아르카디아

아르토스들은 흙의 대륙 아르카디아에 도착한다. 생명력이 고갈되어 죽어버린 땅, 아르카디아를 다시 풍요가 넘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장기를 살려서 대륙이 황폐하게 된 원인을 찾아 탐험에 나선다. 탐험도중 해골군단인 스켈레톤 부대를 만나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암열매를 이용하여 고열온천에 빠뜨려서 물리친다. 그러자 대륙의 비밀을 담은 대한문이 나타나고 그 곳에 그려진 고대인의 상형문자를 해독해서 대륙의 비밀을 얻고 워복백을 열어 엘더와의 통신을 시도한다.

## 화음가족

### 뛰노는 기쁨

4주기에 사귀는 기쁨을 누린 후에 사귀어 깊어진 형제들 또는, 친구들과 함께 뛰노는 기쁨을 누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불꽃비긴스는 잘 정리한 집에 다른 비긴스들을 초대할 예정이고, 푸른비긴스는 친구들을 집에 초청해 대접할 예정이다. 신나비긴스는 친구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김치를 선물하며 즐거움을 누렸고, 한가온비긴스는 긍정적인 대화와 태도로 가족, 친구들과 더 진한 사귀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시원비긴스는 운동을 해서 예쁜진 모습으로 101반 초청을 하고, 화음비긴스는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사귀고 101반 초청활동을 목표로 5주기를 살고 있다.

## 사랑가족

### 집구경 온다고? 잔치 준비해야겠네

마을 주민을 초청하여 초청잔치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초청자 리스트를 만들어 미리 사귀고 무슨 음식을 대접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고민하며 서로 격려하고 각자 맡은 역할로 살고 있다. 아밀리에가 이번 주기 호스트로 식구들을 대접하고, 사임당 공방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운 선물들을 제작하고 있다. 함께 잔치를 준비하며 노래하고 먹고 즐기는 사랑가족이다.

## 성실가족

### 가을왕국에서의 사귀

행복한 배트맨은 가슴을 울리는 피리언주로 섬김을 알리며, 넘치는 칭찬과 풍성한 선물로 초인들을 섬겼다. 대가족 짝이 없었던 초인들은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기는 인도자들에게 감사할 시간을 가졌다. 예쁜 카페가 많은 부암동과 도심 속의 다른 세계, 백사실 계곡을 산책하여 건강한 사귀으로 여가를 누렸다. 재미있는 손오공은 초인들에게 해물탕을 대접할 계획을 세웠고, 팔팔한 간달프와 친절한 소머즈는 가을왕국의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대접하고, 성실한 스파이더는 다양한 게임을 준비하고, 웃기는 맥가이버는 겨울왕국을 꾸미는 계획을 세워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 포도가족

### 포도열매를 수확하자

신비스런 꽃의 나라의 여행에서 돌아온 포도가족은 주렁스머프의 집에서 마을회의를 갖고 서로의 여행에서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서로 용서하였고, 주렁스머프가 가족들을 대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예술의 전당 음악분수를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여 음악과 분수의 춤을 감상하고 그 옆에 있는 식당 '모차르트'에서 저녁을 먹으며 가을을 감상하는 소중한 기쁨을 누렸다.



## 맑은가족

### 아폴론의 절친 포세이돈 구출작전

사랑하는 신들의 스토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세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맑은가족!

갈증해소의 신, 아폴론의 고향 행성은 제록스이다. 제록스는 걱정 근심하는 언해피신이 차지하였는데, 오늘에 집중하여 오후기처럼 일어나, 걱정 근심을 타파하는 카이로스와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마키나는 장기로 아폴론을 도와 친구 포세이돈(삼지창으로 걱정 근심을 물리치는 신)을 구출하는 작전을 짰다.

암흑의 행성에서 살아남은 선한 신 7명은 사랑의 신 롤링스톤을 만나, 제자가 되어, 사랑하는 몸을 만들며, 각자 사랑의 장기를 갖고 닦아, 사랑하는 신세계의 새 가족으로 탄생하였다.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살며 7명중 6명의 신들은 엘젤롭의 연합대표인 카이로스와 뭉쳐 이블리온의 노예로 있는 신들의 고향 행성에서 친구를 구출하기 위해 '가디언즈 오브 피스(평화의 수호자)'라는 팀을 결성하였다.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며, 신세계에서 살게 된 6신들의 절친 구출작전이라는 스토리로 살면서, 5주기에는 갈증해소의 신 아폴론의 고향 행성 제록스로 찾아갔다. 이 때, 이블리온에게 잡혀간 아테나신이 탈출하여, 제록스 행성으로 도망쳐와 6신들과 합류하게 되어, 선물의 신인 헤라의 방에서 축하파티를 하였다. 7명의 신들은 오늘에 집중하여 오후기처럼 일어나, 걱정 근심을 타파하는 카이로스의 장기와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마키나의 장기로, 아폴론을 도와 친구 포세이돈을 구출하는 작전을 짰다.

헤라는 카이로스를 돕기 위해 장소를 준비하며, 간식과 먹거리를 풍성하게 하고, 제

록스의 지혜자 구르는 돌에게서 얻은 사랑하는 능력을 신들에게 나누어주는 소환수를 생성하는 즐거움을 나누어주고 있다. 매주 먹거리를 준비하는 아폴론은 자신의 고향행성에서 메밀국수로 첫 주를 열고, 2주째 주에는 스기야끼로 대접하였고, 5주째는 수제비와 백선생에게서 배운 오믈렛으로 신들의 감탄을 자아내었다.

매주 포비 재료와 신선초를 배합하여 더 강력한 포비를 만들어 아폴론을 도와 신들을 먹이는 헤스디아로 인해, 맛있게 먹으며 신들의 체력을 강화하는 즐거움이 있다. 우리에게 악의 바이러스를 물리치도록 웃음 바이러스로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주는 하하신은 매주 사랑하는 무기연마 학습 퀴즈를 내고, 늦게 참여할 때마다 아폴론에게 전송하여, 모두가 무기 연마에 집중하도록 도왔다. 마키나는 매주 신성을 유지하도록 신의 말씀을 준비해와서 사랑에 집중하도록 도왔다. 카이로스는 주 3회 이상 신성을 강하게 하는 신선초를 구해 신들에게 먹이는 메시지를 보내며 악의 공격을 물리치도록 도왔다. 필사적으로 악의 신에게서 도망쳐 나온 아테나는 매 순간 기쁘게 살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결계를 쳤고, 만나는 신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사랑하는 체온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제 7명은 사랑의 장기로 제록스 행성에서 걱정근심을 물리치고 있는 아폴론을 도와, 사랑의 필살기로 지난 주기에 구출하지 못한 포세이돈을 구출하는 계획을 세워 아폴론의 절친인 포세이돈과 연락을 취하며, 구출 작전 수립을 완성하여, 다음 주 수요일에 비밀리에 만나려고 무전을 치고,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전송하였다.

사랑하는 7신들은 살수록 스토리대로 살아가는 놀라움을 경험하며, 다음 주 우리의 사랑이 포세이돈에게 나타날 기대로 기다림의 설렘을 누리고 있다.





## 예가 소식 & 공지

1. 지금은 창조절기입니다. 창조절기 동안 주기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형제를 향하여 '참 좋다'고 선언하며, 좋아하는 삶으로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절기로 누립니다.

2. 지난 10월 16일(금)에서 17일(토)에는 주일식탁함스테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 중에는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3. 주일 연경반은 주일 저녁 7시,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참여하지 않은 교우들은 하반기 모임에는 꼭 참여 바랍니다.

4. STS(Searching The Scriptures) 하반기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STS모임은 10월 29일까지이며, 11월, 12월에는 없습니다.

5. 신앙입문반 37기는 10월 23일 금요일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나, 성원이 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신앙입문반에 적극적인 초청활동 바랍니다.

6. 목요기도회는 목요일 밤 9시 30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목요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 날 밤기도는 교우들과 교회의 활동들을 위해 청원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7. 바뀐 일정에 따라 11월 15일은 추수

감사주일이며, 국악이 포함된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족모임과 부서모임에서는 이날을 기억하여, 한 해 동안의 삶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감사찬양, 감사헌금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소망, 에스더님입니다. 다음 주는 교우배찬으로 갖습니다. 배찬위원은, 성실, 드림, 희은님입니다. 예배위원과 배찬위원은 한 주간 형제를 좋아하고, 형제에게 잘하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 바랍니다. 성찬대접은 드림가족입니다. 10월 봉헌위원은 샤론님입니다.

### 날짜 성경읽기

월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서 52장
화	예레미야 애가 1장 ~예레미야 애가 5장
수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0장
목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6장
금	에스겔서 17장 ~에스겔서 21장
토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7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준비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YEGA community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반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67

건축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71